

No.20160224-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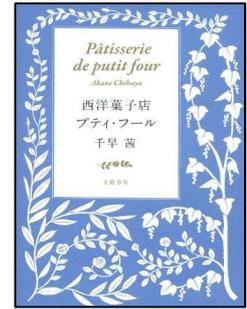
제목: 서양과자점 Petit Four

저자: 치하야 아카네

페이지수: 25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2월 12일



<내용소개>

오래된 서양과자점에 관련된 사람들을 그린 연작 소설집

여자를 설레게 하지 못하는 과자는 과자가 아니다. 서양과자점 '프티 푸르'의 주인이자 아키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그는 도쿄 번두리의 한 동네, 오래된 상점가에 위치한 가게에서 일본식 케이크와 슈크림 등을 만들어 팔아 왔다. 아키 또한 파티셰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보며 주방을 동경해왔다. 프랑스 유학을 거쳐 베이커리에서 일하다가, 여러 이유로 그만두고 '프티 푸르'의 일을 돕게 된다.

이 책에는 여섯 편의 연작 소설이 실려있는데, 각 작품마다 주인공과 시점이 변한다. 소설 제목은 과자에 쓰이는 재료 이름이자 인물들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새콤한 맛의 '그로세이유'는 아키의 삶에서 가장 강렬했던 타마카라는 친구의 추억, 오직 하루 동안만 꽃을 피우는 '바닐라'는 아키를 짝사랑하는 후배 스미타카의 감정과 이어진다. 가게의 단골손님 미사에는 단 맛과 쓴 맛을 동시에 지닌 '카라멜'을 싫어한다. 카라멜의 씹쓸함은 단 것을 오래 반복하여 끓인 결과물이다. 미사에는 카라멜을 통해 자신이 걸보기에 좋은 것에만 매달리는 사이, 남편과의 관계는 높고 타 버렸음을 깨닫는다. '로제'는 스미타카를 짝사랑하는 미나의 이야기다.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상황에서 상처를 받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장밋빛으로 물들일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쇼콜라'는 유우스케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신입 변호사인 그는 아직 일에 서툴다. 아키가 말하는 제과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도움이 되는 평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도 신경 쓰여서, 고민한 끝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한다. 아키처럼 자신이 프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말하고 난 뒤의 두근거림은 마치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같았다. 거품을 많이 내면 분리되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크림'을 보며, 아키는 유우스케를 떠올린다. 아키는 결혼 보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와 헤어지려 하지만, 혼자서는 쓸모 없지만, 다른 지방성분과 부딪혀 막이 벗겨지고, 녹고, 이어지면서 형태를 갖게 되는 크림 같은 존재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은 강한 신념을 지닌 할아버지와 손녀 아키, 서양과자점에 얽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아키가 만드는 것들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은 아니다. 하지만 그

또한 삶의 일부다. 아키와 할아버지처럼 그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달콤하고도 씹살한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그로세이유(Groseille)

바닐라(Vanille)

카라멜(Caramel)

로제(Rosé)

쇼콜라(Chocolat)

크렘(Crème)

<저자소개>

치하야 아카네

소설가. 1979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보냈고, 리츠메이칸대학 문학부 인문종합 인스티튜트를 졸업하였다. 2006년 『물고기』로 제3회 포플러소설대상 파이널리스트, 제21회 소설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물고기』로 2009년 이즈미교카 문학상을 수상, 2013년 『흔적』으로 제20회 시마세 연애문학상을 수상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엷히다』, 『숲의 집』, 『벚꽃 목걸이』, 『잠의 정원』, 『남자 친구』 등이 있다. 현재 교토에서 거주 중이다.

No.20160224-002

제목: 인간 의자

저자: 쿠로 시로

페이지수: 225

장르: 소설

출간일: 2015년 10월 08일



<내용소개>

에도가와 란포의 세계를 현대 사회로 옮겨 풀어낸 소설

이 책은 애니메이션 <란포기담>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인간 의자'를 소설화한 것이다. <란포기담>은 일본의 대표적 추리 및 탐정 소설가인 에도가와 란포의 사후 50주년을 기리며, 그의 작품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배경을 현대로 옮겨 왔기에 세부 내용은 란포의 원작과 전혀 다르다.

이유를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소년 코바야시는 불현듯 눈을 뜬다. 그 곳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의 빈 교실이였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여기저기 피범벅이였다. 그리고 가부좌를 튼 자세에 목이 없는, 기괴하고 섬뜩한 시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담임 교사인 오쿠무라였다. 코바야시는 살해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고교생 명탐정 아케치에게 조사를 받고 풀려난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코바야시는 자신이 왜 정신을 잃고 교실에서 눈을 떠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등 전혀 힌트를 알 수 없는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 코바야시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친구 하시바와 함께 사건 해결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아케치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집에서 코바야시의 지문이 묻은 흉기들이 발견되고, 코바야시는 다시 체포되고 만다. 게다가 피해자인 오쿠무라 선생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엔 연쇄살인의 공범으로 몰린다. 사실 오쿠무라 선생은 자신의 연인들을 죽이고 시체를 의자로 만듦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크고 작은 반전이 이어지며 사건의 내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가운데, 코바야시와 하시바는 진짜 범인을 유인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한다. 마침내 미끼에 걸려든 진범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는다. 같은 학생이자 최근까지 연인 관계였던 호시노가, 오쿠무라를 향한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코바야시는 자신의 힘으로 누명을 벗는 데 성공한다. 또한 아케치에게 인정받는 동시에,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즐거움을 깨닫는다.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는 미처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추가 되어 스토리를 탄탄하게 보완하였다.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으로 옮겨가며 전개되고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생략된 오쿠무라의 사정도 긴 독백을 통해 드러난다. 범인인 호시노의

어긋난 애정도 한층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에도가와 란포 특유의 분위기가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원래 그의 팬이었던 사람, 그의 소설을 읽어본 적 없는 사람 모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매력적인 책이다.

<목차소개>

코바야시 소년, 눈뜨다
단장 - 죄인, 만찬을 즐기다
하시바, 경악하다
코바야시, 도취하다
하시바, 혐오하다
죄인, 독백하다
하시바, 보다
단장 - 죄인, 고통을 중얼거리다
코바야시, 진실을 이야기하다
진짜 범인, 고백하다
오쿠무라, 바라다. 죽음이 다가올 그 때까지
코바야시, 감사해하다
하시바, 단념하다

<저자소개>

쿠로 시로
1974년 가나자와현 출생. 2007년 「밤 11시의 산책」으로 제 1회 「유(幽)」괴담 문학상장편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No.20160224-003

제목: 일이 빠른 사람이 절대 실천하지 않을 시간 사용법

저자: 리오 메구루

페이지수: 224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6년 02월 11일



<내용소개>

현명한 시간 사용법을 통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업무량은 줄지 않는다. 처리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서 오히려 점점 많아진다. 비슷한 일을 담당하는 동료는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내고 퇴근하는 것 같은데, 자신은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있는 날이 잦다. 사적인 시간도 포기하고 거의 매일 일에 매달렸건만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 때로는 상사로부터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절대적인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보기를 권한다.

이 책은 '일'을 두 종류로 나눈다. 주어진 일은 '작업'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성과를 내는 것을 '가치업무'라고 한다. 스스로 만족하고 주위에서 인정받는 것은 후자지만, 매일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그래서 현명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저자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업무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할 일을 전부 늘어놓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 한다. 남은 것 중 우선 순위를 정한 다음, 각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을 세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결한 프로세스를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한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을 도와주는 요령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 야근을 해서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문제 해결로 끝내지 말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 메일은 요점을 분명히 하여 보내기, 회의 일자 정할 때는 미리 선택지를 만들어 설문하기 등 사소한 것들이다.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조금씩 바꾸면 결과적으로 시간 절약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사람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해도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자기 업무를 예정 내에 끝내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음 사람이 순조롭게 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책에는 총 40개의 비법이 수록되어 있다. 핵심 내용을 OK/NG와 칼럼 형태로 한 번 더 정리하여 머리 속에 더욱 잘 들어오도록 해준다.

저자는 10여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이 책은 시간 관리 방법 및 도구를 소개와 더불어, 직장인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시중에 비슷한 종류

의 서적이 많지만, 주로 수법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배워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업무에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목차소개>

제1장: 제일 빠르게 성과를 내는 「시간 사용법」

(시간외 업무를 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 스케줄 수첩에 「약속 없는 날」을 확보한다 / 업무 시작 전 5분에는 1시간의 가치가 있다 등)

제2장: 속도는 「일하는 순서」로 정해진다

(전체 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순서를 정할 수 없다 / 「후 공정」을 생각하며 바톤을 상사에게 건네다 / 기일을 「앞당기는」 심플한 비법 등)

제3장: 「메일」에 시간을 지나치게 들이지 않는다

(메일을 보내고 일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 「○○회사의 △△입니다」는 바로 그만둔다 / 「첨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으로는 불충분 등)

제4장: 「회의·협의」의 생산성을 높인다

(목적 의식 없이 회의에 참가하지 마라 / 일정 조정은 한 번의 주고받음으로 끝낼 수 있다 / 「리뷰」를 한 후에 본 내용에 들어간다 등)

제5장: 「자료 작성」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자료는 읽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쓴다 / 기획서는 전례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처음부터 엑셀로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 등)

<저자소개>

리오 메구루

본명은 코다마 히로노리. 마케팅아이즈 주식회사 대표 임원 및 간사이가쿠인대학 전문직대학원 경영전략연구과 조교수를 맡고 있다.

1962년생, 시즈오카대학 인문학부 경제학과 졸업. 대형 자동차 부품 메이커, 필립모리스 등을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MBA 를 취득하였다. 아마존, 마스터 카드 등의 마케팅 매니저를 역임했다. 2010년에 창업하고 다음해에 법인화하였다. 수익을 호전시켜, 중견기업 대상 컨설팅과 종업원을 손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사원연수, 경영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저서로는 『웬일인지 팔린다: 영업의 초사고』, 『웬일인지 팔리는 것의 공식』, 『땡땡이 시간술』, 『가장 빨리 결과를 내는 사람의 전략적 시간술』 등이 있다. 강연 실적으로 일본경제신문사, 선전회의, 일간공업신문사, 다이아몬드 사, 각지의 상공회의소, 행정기관,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등이 있다. 텔레비 도쿄, ZIP FM(준 레귤러), 아사히 신문, 닛케이 MJ, PHP The21, 프레지던트 등 다수의 미디어 출연 및 게재 실적이 있다.

* 홈페이지: www.businessjin.com

No.20160224-004

제목: 여고생 사장, 경영을 배우다: 부녀의 대화 경영 교실

저자: 시이키 리카, 시이키 류타

페이지수: 288

장르: 경제, 경영

출간일: 2016년 01월 29일



<내용소개>

아빠와 딸의 대화를 통해 배우는 창업 및 경영 기초 수업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꽤 많다. 매일 회사를 다니며 정해진 일과와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다 막연히 생각해보는 사람, 취직이 안 돼서 혹은 퇴직 후 힘들어 하다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장소를 찾지 못해 스스로 나서는 사람 등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막상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주춤하게 된다는 것이다. 괜찮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지 막막하고, 계약서에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 회사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겪어 보지 않은 내용을 어려운 글로 배우면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 책은 사이 좋은 부녀간에 오고 가는 경영 수업이자 인생에 대한 대화다. 아버지(시이키 류타)는 회사를 거쳐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경영해 왔으며, 딸(시이키 리카)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회사를 설립하여 여고생 사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두 사람은 창업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자질과 회사 운영에 대해 말한다. 본격적으로 창업에 뛰어들기 전에 갖춰야 할 태도,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점과 필요한 전략, 이후 회사를 상장하는 단계까지 다루고 있다. 딱딱한 비즈니스 서적과 달리, 리카와 아버지의 대화를 그대로 옮긴 듯한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므로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에게, 회사 경영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들은 매우 보편적인 내용들이다. 당장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공감과 유익함을 느낄 것이다. 본문은 1교시, 2교시 등 총 6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항목이 끝날 때마다 리카가 얻은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제시함으로써 독자의 머리 속에 더 오래 남도록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젊은 시절의 창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귀중한 자산이므로 실패하더라도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들은 분명 언젠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무턱대고 도전해서 고생만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나라도 더 배워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직접 창업하여 회사 경영에 종사 중인 시이키 류타

와 리카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항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명심해보자. 창업을 향해 첫 걸음을 떼려는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 1교시: 우선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 -행동력과 경영 마인드를 배우다
 - 2교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자 -셀프 브랜딩과 스토리의 중요함을 배우다
 - 3교시: 아빠, 자신의 회사를 해고하다 -비즈니스에 따라붙는 역경과 리스크를 배우다
 - 4교시: 최강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 -대자본에 지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다
 - 5교시: 앞으로의 일하는 방식을 생각하자 -인터넷 시대의 팀 매니지먼트와 인간관계를 배우다
 - 6교시: 상장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자본 정책과 주식 공개를 배우다
- 권말부록: 리카의 경영 노트

<저자소개>

시이키 리카

주식회사 AMF 의 대표임원, 실업가. 1997 년 출생. 중학교 3 학년(만 15 세)에 주식회사 AMF 를 창업하며 '여고생 사장'으로 알려졌다. 도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70 명의 전국 여고생으로 구성된 마케팅 집단 「JCK 조사대」의 기획 운영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사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젊은이다운 대담한 발상과 정보 발신력을 평가 받아 2015 년 주식회사 TOKYO GIRLS COLLECTION, TAGPIC 주식회사, 주식회사 MAKEY 의 고문으로 취임하였다. TBS 계열 「선데이 자폰」, 닛테레 계열 「인생이 변하는 1 분간의 깊고 좋은 이야기」, NHK 「아사이치」등 다수의 미디어에 출연하였다.

시이키 류타

주식회사 DLE 의 대표임원. 1966 년 출생. 게이오기쥬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1991 년 4 월 소니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싱가포르, 베트남 주재원 등을 거쳐 2001 년 퇴사. 같은 해에 유한회사 파사니아(현재 주식회사 DLE)를 창업하고 대표임원으로 취임하였다. 「비밀결사 매의 발톱단」, 「팡파카판츠」등을 히트시키며 2014 년 3 월 도쿄증권거래소 마자즈에 상장하였다. 2015 년 6 월에 「도쿄 걸즈 콜렉션」을 사들여, 주식회사 TOKYO GIRLS COLLECTION 을 설립하고 대표임원으로 취임하였다.

No.20160224-005

제목: 「저승」의 명화

저자: 쿠라모치 후미야

페이지수: 176

장르: 인문/교양

출간일: 2016년 01월 07일



<내용소개>

그림을 통해 저승 세계를 풀어낸 교양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주 오래 전 인간이 죽음을 인식했을 때부터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죽은 후에도 생전의 의식이 남아있는 것인지, 그저 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에 태어난 이는 누구든 겪어야만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막연한 개념에 불과한 '저승'은 꽤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여준다.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 질서의 형성 및 유지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생각이 선한 삶을 지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저승의 모습은 사람들의 종교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은 다양한 종교의 저승 세계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이슬람교·불교를 비롯하여 그리스·북유럽·일본의 신화 속 세상, 고대 이집트·인도·중국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그림들을 예로 들었다. 그 속에는 전지전능한 신의 형상과 더불어, 당시 사람들이 저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자세히 드러나 있다. 살아있을 때 저지른 일들이 사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고방식은 어느 곳이든 대체로 비슷하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서양은 유일신 신앙이 강하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신의 말을 어긴 탓에 모두 원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한 그림 속에는 세계 종말의 순간이 오면 신도들은 구원받고 이교도는 전멸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편, 동양의 저승은 규모가 매우 큰데, 주로 미지의 거대한 산이 배경이다. 저승의 주인이 있으나, 주관 영역마다 또 다른 신들이 있는 다신교 세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삶과 죽음은 반복된다는 윤회 사상이 자리잡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교인데, 이런 개념은 다수의 탕화에 자세히 담겨있다. 고대 인도와 중국의 그림에도 비슷한 세계관이 나타난다.

저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저승의 역사는 존재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시대마다 변해 왔다. 저자는 그것을 종교, 신화 별로 나누어 저마다의 특징을 간결하게 풀어냈다. 주요 신들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상식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다. 덧붙여 마야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베트 불교 등 소수 문화권도 살펴보고 있어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거북할 수 있는 소재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교양서로 추천할 만 하다.

<본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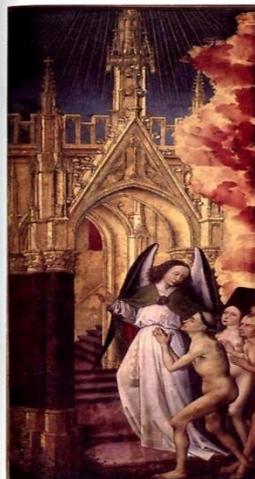


【拡大図】
 トンネルの先で人々を待たせ
 置けているのは神だと考え
 られる

【地上の楽園・祝福された
 者の楽園への上昇】(部分)
 ヒエロニムス・ボス
 1500-04年
 ドゥッコーレ宮殿(イタリヤ)
 トンネル先の門、トンネルの暗
 ころから光が差し込み、神と思
 しき者の影が見える



27 第1部 西方世界のあの世



天国つて、どんなところ?
教会建築は天国のレプリカだった!
 天国の入り口には門があり、天国行きを許された者ならば門を通して
 楽園に至る。ただし、門のイシューはつとは限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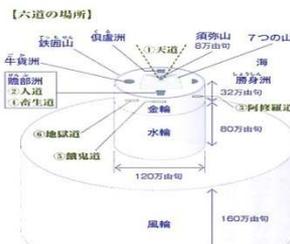
【最後の審判】(部分)
 ロベール・ファン・デル・
 ウェイデン
 1446-52年
 ボーヌ 施設院(フランス)
 教会建築の門、上方では天国の門の
 実態に光が通り注ぎ、人々の心を惹き
 つける。下方では大天使ミカエルが天
 国行きを決断した人々を導いている

↑キリスト教のあの世
天国の門



『世界大相図』(部分) 存続 1821年 龍谷大学図書館
 青と赤に塗られた山が須弥山。この山を中心に宇宙が広がっている

極楽や地獄は、
 この巨大な
 山にある!
 仏教の宇宙観は「須弥山
 世界」で表される。この
 図をみれば、六道の位置
 関係などが目わかる



六道とは……
 ①天道 神々が住む世界
 ②人間 人間が住む世界
 ③阿修羅道 争いや怒りが絶えない阿修羅の世界
 ④畜生道 人間以外のあらゆる動物が住む世界
 ⑤餓鬼道 飢えと渴きに苦しむ餓鬼が住む世界
 ⑥地獄道 罪を犯した者が墮ちる世界

↑仏教のあの世
須弥山

<목차소개>

제1부: 서방세계의 저승세계

- 서방세계의 저승 세계란? 「일신교」가 사후 세계관의 중요한 키워드
- 크리스티교의 저승
- 이슬람교의 저승
- 그리스 신화의 저승
- 북유럽 신화의 저승
- 고대 이집트의 저승

제2부: 동방세계의 저승세계

- 동방세계의 저승: 장대한 스케일로 전개되는 만물 유전의 세계
- 불교의 저승
- 일본 신화의 저승
- 고대 인도의 저승
- 고대 중국의 저승
- 도교의 저승

<저자소개>

쿠라모치 후미야

1946년 도치기현 출생. 와세다대학 제1문학부 불문 전공 졸업 후, 파리제4대학(소르본) 석사 과정(비교문화 전공), 파리고등사회과학연구원 박사 과정(문화인류학 전공)을 수료하였다.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교수 및 몽펠리에 대학 객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페스트 문화지』, 『샤를라탄-역사와 해학의 배후자들』, 『영웅의 징표』, 『유럽 민중 문화의 상상력』, 『의료식의 문화학』 등이 있다. 그 외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No.20160224-006

제목: 인류를 구하는 '케톤체'

저자: 무네타 테츠오

페이지수: 350

장르: 건강, 의학

출간일: 2015년 11월 17일



<내용소개>

당뇨병으로 고통 받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새로운 해법으로 '케톤체'를 제시하는 책

제목에 등장하는 케톤체란, 체내의 지방 분해에 의해 생겨난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다. 인체가 당질을 섭취하면 지방을 분해하여 영양분이 되는 대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적정량 이상 생겨나면 건강에 좋지 않고, 특히 중증의 당뇨병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태아·신생아·산모의 혈중 케톤체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아이의 지적 발달을 지연시킬 위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케톤체가 인류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저자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는 임산부를 많이 만나왔다. 당뇨 혹은 비만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해결책을 전하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미 당뇨를 앓고 있던 사람이 임신을 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질환 정도에 따라 태아에게 기형이나 장애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의사가 임신을 중단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임신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임신당뇨병 환자에게는 보통 영양 관리 치료를 실시한다. 그것은 산모에게 매우 괴로운 일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존의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당질 섭취를 멈추고 단백질과 지방질 중심의 식사로 전환하여 해결한다. 탄수화물 위주의 포도당 대사를 케톤체 대사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후자는 당질 제한과 혈당치 관리만으로도 안전하게 출산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처음 일본 국내에서 발표되었을 때, 저자는 무수한 반발과 비난에 시달렸다. 그것은 기존의 정설을 뒤엎는 이론을 거부하는 폐쇄성 때문이라 지적한다. 연구를 통해 태아 및 신생아의 제대혈·용모 속 케톤체 농도가 기준치의 20~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산모의 당질 제한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는 태아가 '포도당을 사용한 대사'가 아닌 '지방질(케톤체)를 사용한 대사'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는 몇몇 산모의 체험담을 공개하고 있다. 식사 구성을 당질 제한 위주로 변화시켜 당뇨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끝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산모의 건강 상태는 태아와 직결된다. 당뇨병을 앓게 되면, 약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관

리가 더욱 어려워진다. 저자가 소개하는 해법을 시도해보라고 무작정 권할 수도 없다. 그러나 기존 방법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현재 치료법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 책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을 미리 요약함

제 1장: 내가 당뇨병에 걸렸을 때

제 2장: 임신 당뇨병에 처음으로 당질 제한

제 3장: 케톤체 이야기 전편 -학회의 비난부터 새로운 발견에 이르기까지

제 4장: 케톤체 이야기 중편 -게다가 용기 있는 임산부의 등장!

제 5장: 케톤체 이야기 후편 -이렇게나 대단한 「케톤체 엔진」

제 6장: 영양학의 상식, 실은 틀렸다!

제 7장: 임신 당뇨병이란 대체 무엇 -임신기의 인체가 가르쳐 주는 것

제 8장: 안녕 백미환상!

제 9장: 학회라는 이상한 세계 -당질 제한 비판을 생각하다

제 10장: 「씩씩한 임산부들」과 「케톤체」가 일본을 구한다! <체험담>

최종장: 케톤체가 만드는 미래

<저자소개>

무네타 테츠오

1947 년 치바현 출생. 1965 년 홋카이도대학 이학부 지질학광물학과 입학, 졸업 후에는 국제항업에 입사하여 지질 조사 등을 맡았다. 그 후 의사에 뜻을 두고 1973 년 테이쿄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다. 졸업 후에 아즈사와 병원, 타치가와 소고 병원을 거쳐 치바현 이치하라시에 무네타 임산부 클리닉을 개원하였다. 저서 『즐거워지는 출산-자연분만·모자공동실추천』, 공저 『포기하지마 불임』 외에 「엄마 아이 같은 방 이론」, 「자연스러운 의료 감시로 만족스러운 자연분만을!」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동생들의 탄생-어떤 가족의 출산 참관』라는 비디오도 제작하였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그룹「당질제한」의 공동 대표, 「케톤 재」의 장을 맡았다. 당뇨병 환자의 임신, 임신 당뇨병의 당질 제한 관리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

No.20160224-007

제목: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인정하지 마라, 여자는 죽을 때까지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저자: 하스무라 마코토

페이지수: 223

장르: 처세

출간일: 2015년 03월 24일



<내용소개>

남자의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통해,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책

남자와 여자는 다양한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신체구조의 차이는 명확히 알지만,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의 차이점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르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막상 부딪히면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남자어', '여자어'같은 신조어도 등장했다. 말에 내포된 의미를 이성인 상대방이 알아 채지 못하는 답답함을 가볍게 풍자하는 것이다. 때때로 여자는 남자를 너무 단순하다 말하고, 남자는 여자를 지나치게 복잡한 존재라고 말한다. 이런 문제점과 어려움은 연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 사이, 상사와 부하, 부모 자식간에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과 보다 원활하게 관계를 맺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은 남자와 여자, 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아유르베다적 관점에서 풀어낸 글이다. 아유르베다는 고대 인도인들의 지혜와 가르침을 집약한 것으로, 완벽한 삶의 시스템을 지향하며, 의학·심리학·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남자에게는 남자다운, 여자에게는 여자다운 생활 방식이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여자는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듣고 싶은 경향이 강하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형식이 다른 것이다. 남자는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남자는 동료를 더 챙기고 여자는 가족을 더 챙긴다. 물론, 일반화하여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이런 형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자는 남자가 행복해지는 방법과 여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남녀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기 성별에 맞는 행복 추구 법을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일상에서 명심해야 할 행동 조항과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밸런스를 중시하는 아유르베다의 생활·식사 비법도 덧붙였다. 책의 전반부는 남자, 후반부는 여자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호응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낯은 남녀관을 제창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설득력이 있다. 과거 경험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성과 오래 사귀지 못하거나 부부 간 문제로 고

민 중인 사람에게 유용할 듯 하다. 가장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게끔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 책은 앞으로 행복해지는 길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 남자와 여자에게는 행복의 분기점이 있다

남녀 공통: 알아두자.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지식

남자의 행복, 남자의 생활방식

- 남자다운 생활방식으로 살자!
-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남자의 「해야 한다」 조항 10개
- 남자의 결혼생활의 모든 것
- 남자의 일생과 역할
-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남자의 9개의 마음가짐
- 남성편: 이 스트레스 해소법에 주의 요망

여자의 행복, 여자의 생활방식

- 여자다운 생활방식으로 살자!
- 행복하게 살기 위한 여자의 「합시다」 조항 10개
- 여자의 결혼생활의 모든 것
- 여자의 일생과 역할
- 행복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여자의 9개의 마음가짐
- 여성편: 이 스트레스 해소법에 주의 요망

부록: 남녀가 함께 행복해지는 식사와 생활

<저자소개>

하스무라 마코토

마하리쉬 미나미 아오야마 프라임클리닉 원장.

1961년생. 도쿄자혜회의과대학 졸업하였다. 의학 박사, 의료법인사단방우이사회 이사장, 네덜란드 마하리쉬 베다 대학·마하리쉬 아유르베다 인정 의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베다 평화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도쿄자혜회의과대학 병리학 교실 및 신경 병리연구실 근무 후, 1992년 네덜란드 마하리쉬 베다 대학의 마하리쉬 아유르베다 의사 양성 코스에 참가했다. 현재, 진찰을 담당하는 한편 마하리쉬 베다 의료 의사 양성 교육, 전국 각지의 강연 활동, 서적 집필 등 마하리쉬 베다 의료 보급에 힘쓰고 있다. 『뇌의 피로를 푸는 책』, 『병에 걸리지 않는 「백탕」 건강법』, 『알레르기 체질에는 「식사조합」이 만든다』, 『판타스틱 아유르베다』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224-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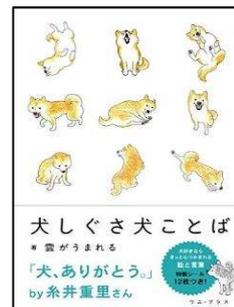
제목: 개의 몸짓, 개의 말

저자: 쿠모가 우마레루

페이지수: 125

장르: 일러스트

출간일: 2015년 09월 10일



<내용소개>

시바견을 의인화하여, 개의 몸짓과 개의 말에 관해 표현한 일러스트 작품을 모은 책

이 책은 작가가 2년간 투고한 일러스트 중, 100여 점을 엄선하여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작가는 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개들도 저마다 자기에게 편한 자세를 찾아 앉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흥미가 생겼고, 그저 귀여워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차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다고 한다. 종종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추측과 상상일 뿐이다. 작가는 '기쁘다'와 '아니다'로 나뉘는 개의 단순함이 매력이라고 말한다. 감정이 바로 꼬리에 나타나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금세 회복된다. 그림에는 개를 관찰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 가능하던 작가의 애정이 담겨 있다. 한 컷 짜리 그림들과 짧은 문구 속에,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가득하다. 귀여운 그림들 중간 중간, 안쓰럽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등장한다. 새롭게 추가된 다섯 개의 짧은 칼럼 「개와 여러 가지 과학」은 소소한 주제에 대해 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 실린 귀여운 일러스트는 지친 일상에 따스한 웃음을 선사해 줄 것이다. 개의 눈에 비치는 인간 세상을 느껴보기를 바란다.

<본문 이미지>



めすにウケるしゅみ。



柴犬がLINEで草テロしてきた。



ひなたー、にげちゃってますよー。



うしろでなんか音した！



コンプリート！！



ねこちゃんのおすな キラキラ！

<저자소개>

쿠모가 우마레루

시바견을 중심으로, 개의(때로는 고양이도 함께) 일러스트와 문구를 트위터에 계속 투고하고 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공략한 작품으로 인기다. 2014 년 가을, 신과 개가 대화를 주고받는 작품을 이토이 시게사토 씨가 리트윗하면서 팔로워가 급증했다. 그 후 「호보일간 이토이신문」의 보호견 응원 굿즈의 일러스트로 채용되어 라이브 드로잉 이벤트도 하고 있다.

* 트위터: 雲がうまれる (@KatteniCampaign) <https://twitter.com/kattenicampaign>

No.20160224-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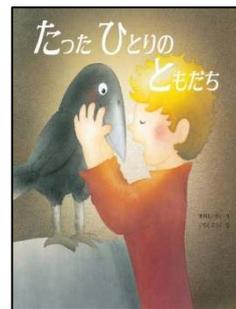
제목: 단 하나의 친구

저자: 하라다 에이세이(글), 이모토 요우코(그림)

페이지수: 24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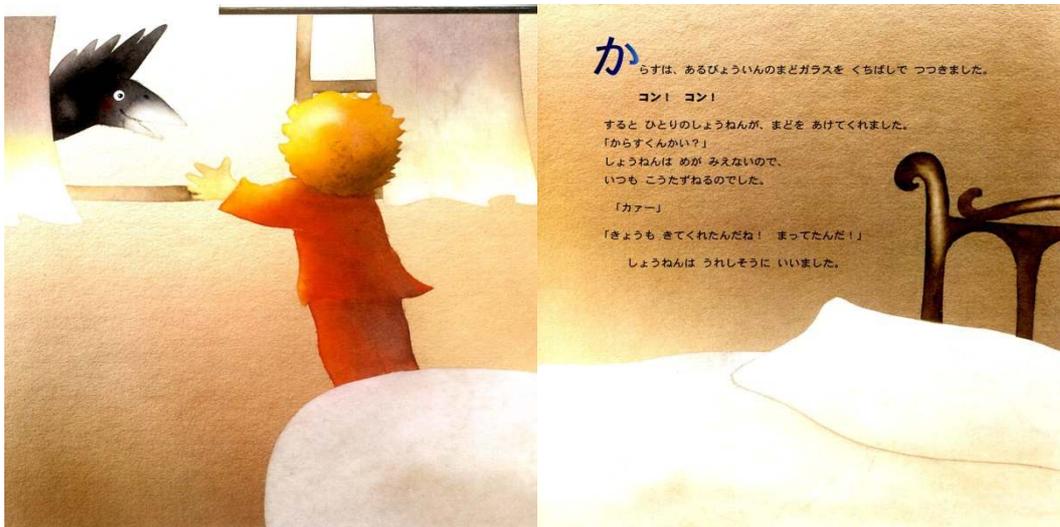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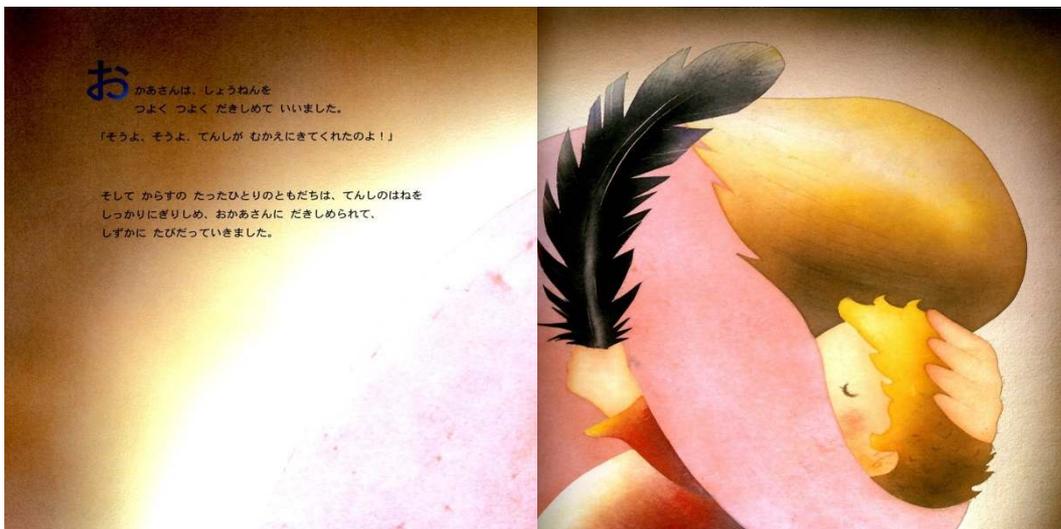
<내용소개>

까마귀와 한 소년의 우정을 아름답고 슬프게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외톨이 까마귀는 병원에 입원한 한 소년과 친구가 됩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소년은 눈 앞 이 보이지 않고 어딘가 아픕니다. 까마귀가 자신의 병실을 찾아와 부리로 퐁퐁 두드리면, 반갑게 맞이하며 창문을 열어줬습니다. 소년은 궁금한 것을 잔뜩 물어보고 까마귀는 '까악'하며 답했습니다. 소년의 병세는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와주면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자신의 단 하나뿐인 친구'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그런 말을 들은 까마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다음날 소년을 찾았을 때는 어느덧 작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여 힘들어 합니다. 그 때 까마귀는 천사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자신의 날개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 소년의 손에 쥐어줍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소년은 그 깃털을 쥐고는,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면 안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까마귀는 슬퍼하며, 소년에게 들리도록 크게 외칩니다. 너도 내 유일한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소년과 까마귀는 마음이 통하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소중이 여겼던 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는 물론 어른도 가슴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하라다 에이세이

1972 년 시즈오카에서 태어남. 대학 졸업 후, 홀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세계 13 개국의 친구들과 만나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웠다. 귀국 후, 독자적인 인생철학을 매일 매거진 월간「코코로노 사프리」로 전승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차 해외를 돌아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다. 출장 전, 가족에게 남기는 마음 따뜻한 짧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공개하고 있다. 이 동화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신을 만날 수 있는 안경: 애송이가 신에게 받은 8 개의 메시지』등의 저서가 있다.

* 블로그: <그림 없는 그림책~아버지에게서 엄마에게> <http://blog.livedoor.jp/eisei0718-harasan/>

이모토 요우코

효고현 출생. 가나자와미술공예대학 유화과 졸업. 『고양이 그림책』, 『메밀 꽃이 핀 날』로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엘바상을 2 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모토 요우코의 그림책 1』로 동 대회 그래픽상을 수상하였다. 『숫자 그림책』, 『인사』, 『다음은 내 차례』, 『오늘의 그림책』, 『ABC 그림책』, 『이모토 요우코의 일본 옛날 이야기』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224-010

제목: 눈 오는 날의 분실물

저자: 카사이 마리

페이지수: 31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8년 1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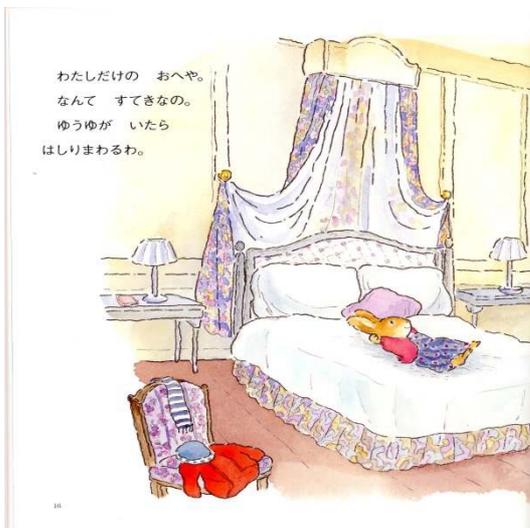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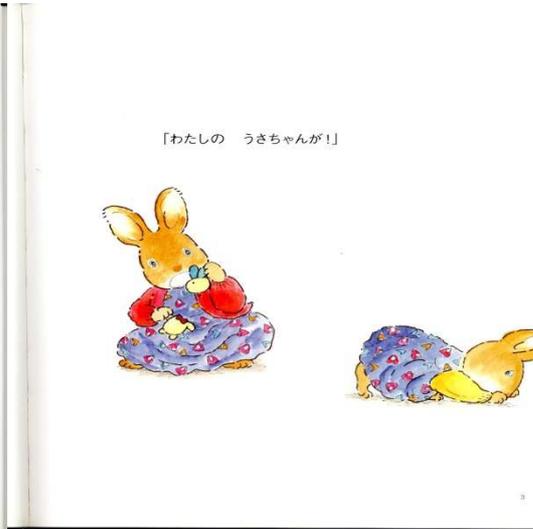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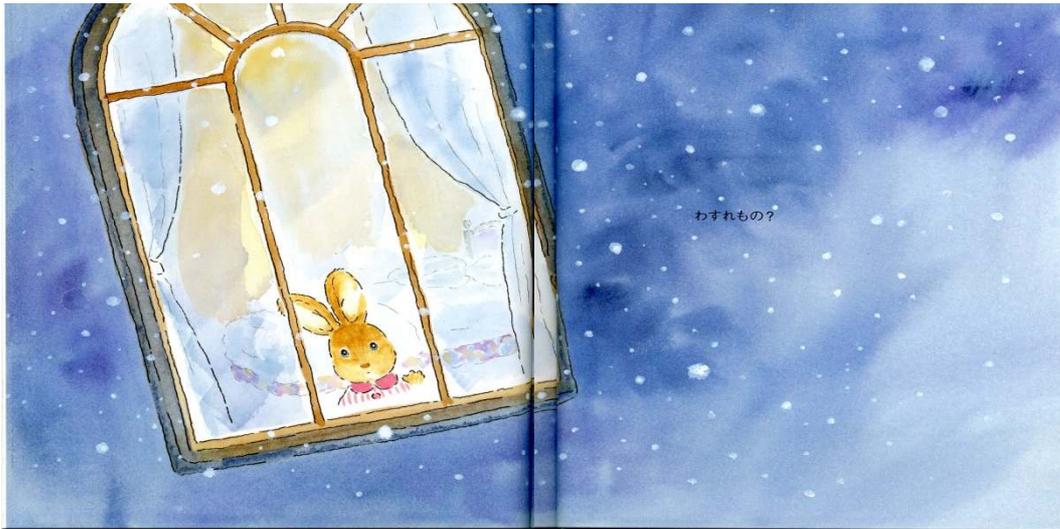
떨어져 있으면 더욱 느껴지는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그린 이야기

어릴 적 형제자매가 있는 집안에서 형이나 언니로 자란 사람들은 다들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생 때문에 속앓이를 했던 경험입니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망가뜨려놓거나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아이스크림을 동생이 먼저 먹어버렸을 때 화를 내기라도 하면 옆에 있는 부모님은 항상 동생 편만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기도 똑 같은 자식인데 어째서 동생 편만 드는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동생 편입니다. 그러다가 동생과 떨어져 지낼 때가 오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인 듯 편하고 즐겁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눈엣가시인 동생이 없어서 즐거워야 하는데 막상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 허전한 마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유대감입니다. 이 동화책은 아이들에게 유대감과 가족 간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족이란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생이 저의 소중한 인형을 망가뜨렸습니다. 한 두 번도 아니고 하는 행동마다 맘에 안 드는 동생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저는 오늘부터 옆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맛있는 과자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넓은 방에 혼자 있어서 너무나 신난 저는 그날 밤 아주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원래 있던 집에서 뭔가를 놓고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그 분실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윽고 밤이 되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 바깥 풍경을 보던 저는 다시 가방을 꾸러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걸렸던 분실물이 바로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이미지>





<저자소개>

카사이 마리

일본 홋카이도 출생. 홋카이도 예술디자인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의 손님' 등이 있다.